

2023년 7급 공채 PSAT 시험이 끝났습니다. 언어논리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자면 2022년의 출제경향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는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출제경향이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문제 유형별로 2023년의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언어영역

일치부합형, 추론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언어영역은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언어논리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대비를 충분히 하였다면, 수험자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크게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의 길이나 난도의 면에서도 2022년 시험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논리응용영역

문제번호 11번~20번에 해당하며 논리논증 및 주장평가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으로 수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앞서 일반적인 언어영역의 문제보다는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의 논리적 지식을 사전 습득하지 않고 시험 현장에 임했다면 (문제 자체가 가지는 난이도는 차치하더라도) 정답을 도출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면에서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문제만 반복적으로 푸는 일회성 공부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학습과 대비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언어영역의 문제보다는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므로 각 유형별로 최적화된 풀이 과정을 별도로 찾아내고 체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실무영역

실무영역은 실무적인 소재를 다루지만 언어영역이나 논리응용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유형으로 출제되기도 하며, 22~25번처럼 실제 실무의 과정에서 다룰 법한 판단과 적용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들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난이도면에서는 일반적인 언어 문제보다는 분명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며, 시간의 면에서도 일반적인 언어 문제보다는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특정의 법규, 규정, 조례 등을 제시하고 상황에 따라 적용·판단하는 문제는 매년 핵심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시되는 조항들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조건+판단)을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보기>나 선택지에 제시되는 상황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해야 합니다.

2024년을 위한 준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어논리는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여러분에게 언어논리와 관련하여 가볍게 준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7급 공채가 상대평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2023년과 같이 시험이 평이하게 출제된다면 그만큼 합격 컷이 높게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7급 공채는 문제당 4점이 부여되므로, 각 문제가 가지는 비중 자체도 큰 시험입니다. 이는 한 문제라도 실수

를 하거나 틀리게 된다면 만회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보다 완벽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독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해연습과 기초적인 논리지식의 습득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은 공부 양을 늘리는 것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시험을 통해서 깨달아왔겠지만, 단순히 공부의 절대량만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증대되거나 점수의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도 어떠한 궁금증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푸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점수를 확인하고 (다시 출제되지 않는 기출문제의) 해설만 이해하는 반복적인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기출문제에 대한 정답과 해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풀이방법이나 정·오답의 판단 기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궁금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얻어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7급 공채에 대한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